Memories of dimensions

차원의 기억

영원

대학혁신 지원사업

夢遊

기억은 또 다른 우주를 만든다

차원의 기억

차원의 기억

© 윤원영, 2024, Printed in Seoul, Korea

초판 1쇄 펴낸날 2024년 12월 16일

지은이 윤원영
펴낸이 윤원영
편집 윤원영
디자인 윤원영
펴낸곳 몽유
등록 2024년 10월 20일 제2024-000001호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전자우편 k22mh@sookmyu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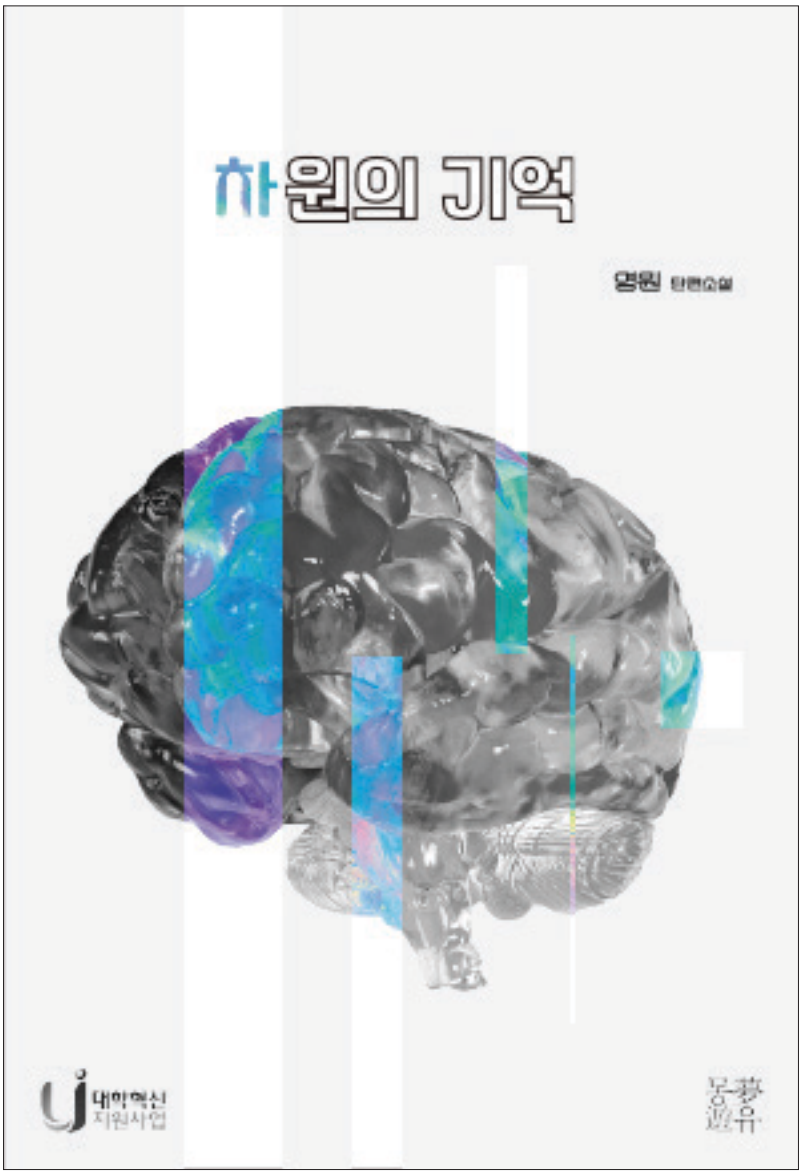
ISBN 000-00-00000-00-0 00000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종합목록 구축시스템(http://kolis-net.nl.go.k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24104829)

몽유는 한국 출판사의 SF 브랜드입니다.

만든 사람들

책임편집 윤원영
크로스교열 윤원영
본문디자인 윤원영
본문조판 윤원영


차원의 기억
영원 단편소설
대학혁신
지원사업
夢遊
몽유

PROLOGUE

1장 첫번째 꿈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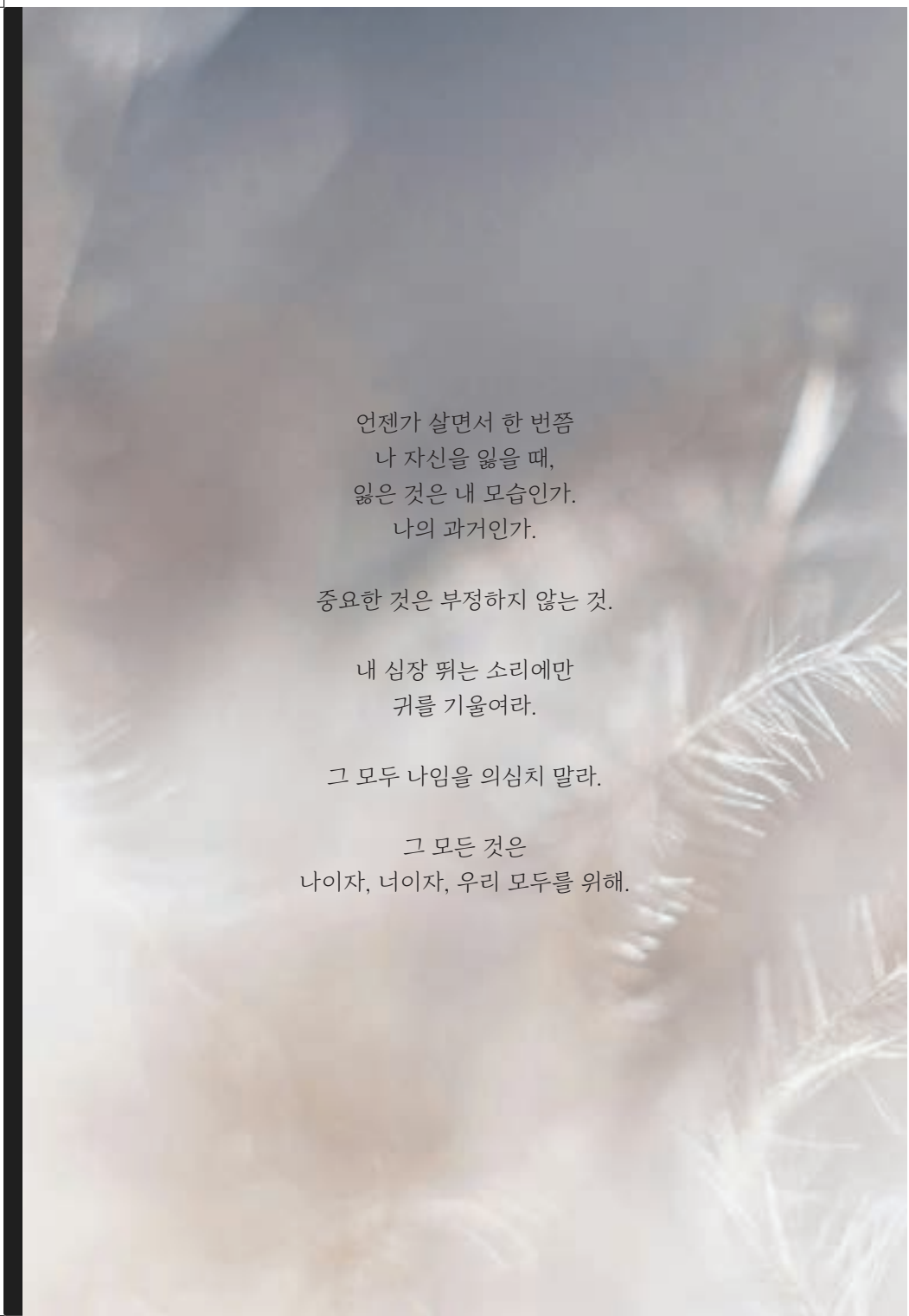
2장 두번째 ■ • 40

3장 ■■■ ■■ • 68

4장 ■■째 ■■ • 90

epilogue

작가 노트 • 107



언젠가 살면서 한 번쯤
나 자신을 잃을 때,
잃은 것은 내 모습인가.
나의 과거인가.

중요한 것은 부정하지 않는 것.

내 심장 뛰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라.

그 모두 나임을 의심치 말라.

그 모든 것은
나이자, 너이자, 우리 모두를 위해.

본 도서의 배경과 설정은 모두 허구이며 실제 지역 및
기관, 인물, 단체,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아, 또 이 꿈이야?”

프롤로그

이곳은 지옥철. 지옥이 되기 딱 좋은 시간인 오전 8시 00분.
출근 시간이다. 으악!

안 그래도 낑겨 서 있느라 불편한데, 옆에 있는 아저씨는 전화 통화까지 한다. 전철이 속도를 올리고 줄일 때마다, 아저씨의 팔꿈치에 내 팔이 계속 찍힌다. 아침부터 커피와 담배를 함께 즐기셨는지 입 냄새도 고약해서 제발 입 좀 다물어줬으면 좋겠지만,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업무 통화다.
아침 8시부터 업무 통화와 함께하는 출근이라니……. 비록 냄새는 지독하지만, 같은 직장인으로서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져 참아넘기기로 했다….

"와, 진짜 죽겠네."

전철에서 나오자 상쾌한 공기가 맞이했다. 나와봤자 역을 둘러싼 도로의 수많은 자동차가 뒤쳐질세라 배기가스를 내뿜어대지만, 진정한 지옥철에 시달리고 난 이후라면 이 또한 시원한 숲 내음이 된다.
하차카드를 찍고 나오자 지하철 앞에서 어느 할머니가 전단지를 나눠주시고 계셨다. 이런 건 무조건 받는다.

"여기…."

할머니가 내미는 전단지를 앞 사람이 가볍게 무시했다. 민망한 표정으로 할머니가 이어서 나에게 전단지를 내밀었다. 일찍 퇴근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받았다. 그런데 받고보니 이 전단지 상당히 개성적이다….

존재한다!

확 인 하 라 !

천 생 체 험

더 알기: 너튜브 “6차원” 검색

만남의 장소: 홈피타운 1번지

사이비 아님!!

그들은 마치 인형탈을 쓰고 근무하는 직원들과 같다. 인간의 형태인지 동물의 형태인지 모를 어색한 모습으로 부끄러움 하나 없이 나타난다. 인간이 그 형태에 기겁하고 나서야 아리송하다는 듯 몇 번 머리 부근을 기울이다 간신히 사회성을 갖춘 인간의 모습으로 외관을 조정하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누구시냐 물어도 그들은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들은 우리와 마주한 그 시점, 그 공간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더 상위 차원의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한 눈에 꿰뚫는다. 모든 시공간을 동시에 보고 간섭한다. 1시간 전도, 지금도, 1시간 후도 전부 동시에 존재한다. 그렇기에 그들과 음성으로 소통하려한다면, 인간의 언어는 그들에게 닿지 않는다. 그들과 소통하고싶다면, 문자를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그들의 이름은 기억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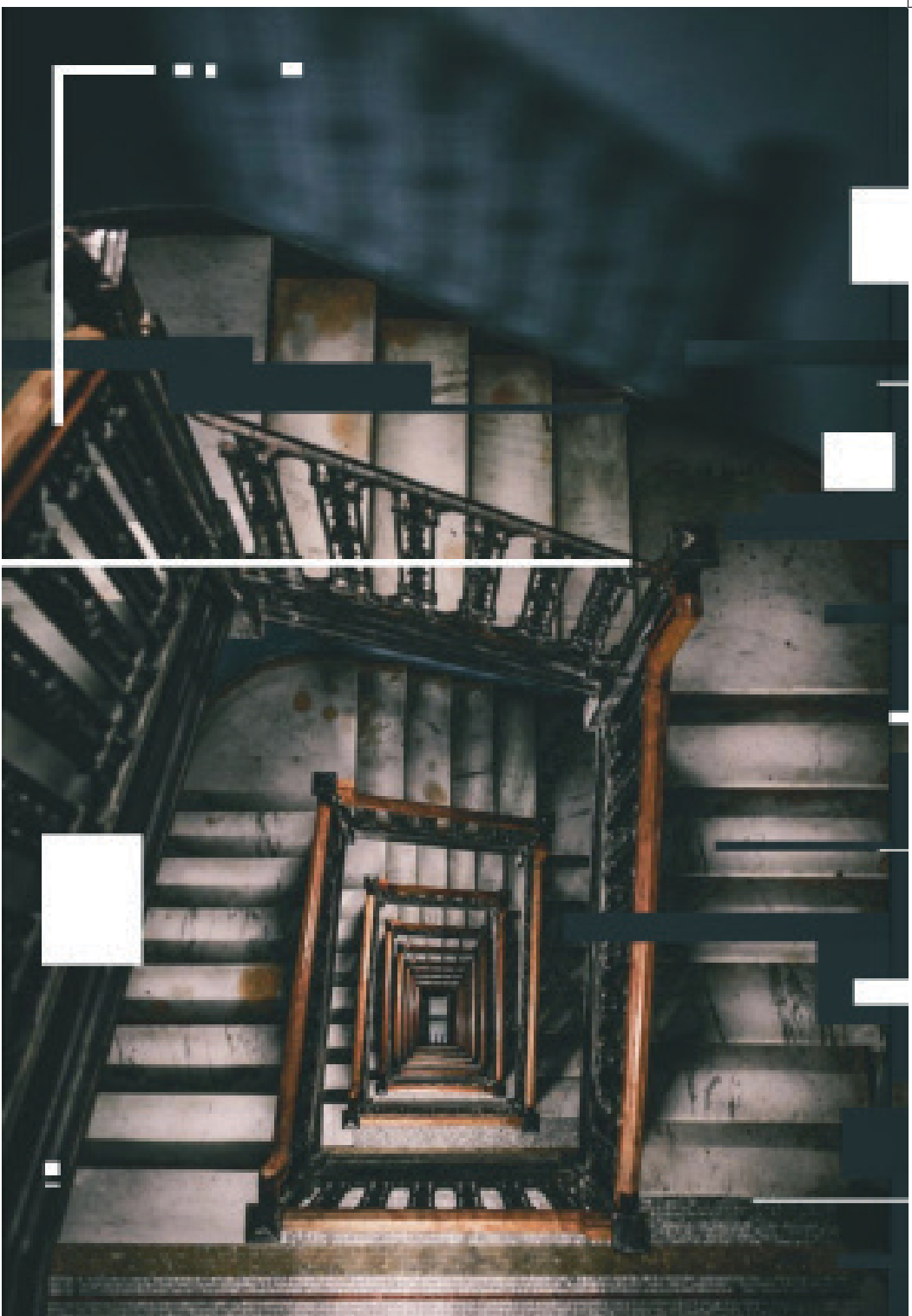
외계인 아님!!

"뭐라는 거야?"

앞 장으로 넘겨보니 촌스러운 광고 디자인으로 "존재한다! 확인하라! 전생 체험!" 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혀있었다.

이제야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이 광고에 매정했는지 알았다…. 이런 사이비 삐라는 또 처음 보네. 가차 없이 접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배치된 쓰레기통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가방에 대충 쑤셔 넣었다. 가방에 손 넣은 김에 속주머니를 더듬어 이어폰도 꺼냈다. 달달 말린 이어폰 줄을 풀며 어떤 노래를 들을지 생각했다. 최근에 나온 걸그룹 미니의 솔로곡도 신나서 흥얼거리기 좋았고, 솔로 가수 혜원의 노래도 발랄하고 중독적이라 좋았다.

온갖 노래를 곱씹어보며 이어폰 마개를 귀에 꽂을 즈음, 사이비 광고지 따위는 완전히 잊혔다.



1장
첫번째 꿈

첫번째 꿈

쿵쿵!

허억 허억

내가 왜 뛰고 있지? 왜 도망치고 있지? 무엇으로부터…, 나는 어디에—

"으아악!"

시꺼먼 어둠에 가려 아래가 잘 보이지도 않는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내려간다. 쿰쿰한 쇠냄새, 곰팡이냄새, 지하 냄새를 간절하게 들이마시며 수많은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린다.

쿵쾅쿵쾅!

"뭔데!"

"빨리 내려가라고!"

"도, 도와주세요!"

"악!"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상황 파악이 덜 되었어도 나는 본능적으로 뛰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뛰어 내려갔다. 숨이 넘어가라 뛰었다! 너무 힘들어서 뒤를 살짝 돌아보면 발걸음을 늦추다가도, 밀려드는 어둠에 삼켜 사라져가는 사람들을 보자니 휴식이고 뭐

고 다시 뛰었다. 나보다 앞서서 뛰어가던 세 명의 등만을 바라보며 뛰었다. 점점 사람들의 비명이 줄어갔다. 두려웠다. 조명 하나 없이 어두컴컴한 이 계단에서 나는 넘어지지 않고 달리는 것에만 집중했다. 아주 작은 창문에서 비치는 달빛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 내려갔다. 작은 창문 밖에 보이는 밤하늘은 이곳이 상당히 높은 장소임만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줄어갔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줄어갔다. 앞사람의 발소리에만 집중했다. 더 이상 내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싹함에 뒤를 돌아보려 했다.

"누구니?"

소리가 들렸다. 가느다란 여성의 목소리였다. 순하게 울리는 부드러운 목소리 사이, 힘이 다 빠진 듯한 쇳소리가 섞인다. 그 목소리는 다시 한번 들려왔다.

"누구야?"

선두 주자들이 뒷걸음질 쳤다. 어두컴컴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선두 주자의 어깨 너머로 여성의 형체가 보였다. 천천히, 아주 느긋하게 그것은 발걸음을 내디뎠다. 선두 주자들이 더듬더듬 뒤로 물러났다. 그것은 한 걸음 더 계단을 올랐다. 사라질 듯한 달빛이 그것을 비추었다. 끔찍해!

"귀, 귀신...!"

내 앞에 있던 선두의 입에서 한 단어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세상이

세상이

표 뒤집어졌다.

쿠구궁, 쿵!

투둑!

으아아아…! 아아아……,

몇 안 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아래로 사라졌다. 비명이 흩어진다. 이내 **토마토**가 바닥에 터지는 듯이 별거 아니라는 듯한 크기의 소리가 **퍽, 퍽, 퍽** 하고 들렸다.

"하아... 하아... 하아..."

그러니까, 계단이 천장에 있고 내 발아래는 까마득한 어둠만이 허공을 채우고있다고!

꽈악...

나는 계단의 사이드 손잡이를 잡고 매달려있었다. 오랜만에 과격하게 쓰게 된 팔 근육이 바들바들 떨려왔지만 나는 절대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턱걸이 정도는 가볍게 했던 2년 전의 몸이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버텼을 텐데... 꾸준히 할걸! 헬스장 사장님이 할인 더 해준다고 할 때 그냥 계속할걸!

"흑…,"

방정맞게 후회하며 나는 손에 힘을 줬다. 전완근에 핏줄이 불거졌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그리고 몇 걸음 안 되는 천장에 그것이 날 지켜보고 있었다…!

무서워, 무섭다고!

그것이 잠시 날 내려다보더니 손을 뻗었다.

끼이이- 쿵,

세상이 다시 돌아갔다. 다시 뒤집혀 나는 터진 **토마토** 꼴을 면한 채로 갓 태어난 염소마냥 다리를 후들거리며 계단에 몸을 뉘일 수 있었다. 하지만 숨을 고르기도 잠시 **그것**은 다시 나를 향해 계단을 올라왔다.

으아아악!

소리 지를 힘도 없었기에 나는 속으로 소리 질렀다. 나는 꼴사납게 주저앉아있던 그 모습 그대로 사족보행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러다 다급하게 이족보행으로 뒤를 돌아 그렇게 죽을 듯이 내려왔던 계단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단시간에 수시로 뒤바뀐 균형감각에 반고리관이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몇 번 허우적거렸지만, 이내 생존본능으로 곧바로 적응하여 달리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귀신한테 잡혀 죽는 게 아니고 종아리근육이 터져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미친 듯이 계단을 올랐다.

진짜 미치겠네!

그것은 뛰지도 않고 걷고 있고 나는 죽어라 뛰고 있는데도 뒤를 돌아볼 때마다 계단 한 줄 차이로 그것은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기를 선택한 순간부터 끝이 없다는 공포 또한 내 마음을 좀먹어갔다. 옥상에 도착한다면, 다음은? 옥상에서 뛰어내리기라도 할 건가? 애초에 옥상이라는 끝은 존재하나?

"…!"

입에 바짝 말라 쇠 맛이 느껴지던 중, 나는 비상구 표시를 발견했다. 비상구…. 비상구? 다음 계단만이 간신히 보이는 이 공간에서 나는 다음 계단이 아닌 계단의 사이드로 발걸음을 돌렸다. 최대한 외곽으로 가자 몇걸음 가지도 않아서 벽이 만져졌다. 나는 벽에 손을 댄 채로 계단을 올랐다. 다음 계단 라인으로 가기 위해 꺾는 평지 구간에서 나는 결국 문고리를 발견했다.

덜컹!

우하하! 잠겨있지도 않았다! 나는 드디어 계단 지옥에서 벗어나 건물로 추정되는 내부로 들어왔다. 달리기를 멈출 수는 없었다. 내부는 망한 영화관과 같은 모습이었다. 조명은 망한 클럽에서 가져오기라도 했는지 음침한 붉은색과 푸른색이 끊어질 듯 간신히 껌뻑였다. 나는 일단 달렸다. 영화관에 왜 녹슬어서 다 부셔져 가는 회전목마가 엎어져 있는지, 왜 기괴하게 잘린 마네킹이 굴러다니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달렸다. 탈출할 곳이 있기를 바라며, 도망칠 곳을 찾기 위하여!

찾았다.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나는 허겁지겁 뛰어가서 내려가는 버튼을 눌렀다. 5층에 있던 엘리베이터는 6층으로 올라왔고, 7층에서 8층으로, 9에서 10… … …21대체 여기 몇 층인 거야?! 엘리베이터는 미친 듯이 숫자만 올랐다. 39를 넘었다고! 뒤에서 그것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미치겠네 진짜!

스윽, 스으윽….

소름끼치는 찬기가 가까워져 오는 것이 느껴진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엘리베이터의 숫자는 50을 돌파했다. 나는 두려움에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숫자만을 바라보았다. 70...71...

띵동!

88층입니다.

안내음이 들렸다.

스르륵.

"..."

문이 열렸다.
동시에 식은땀이 말랐다.

나는 타지 않았다.

스르륵.

쿵!

엘리베이터는 다시 얌전히 문을 닫았다. 나는 심호흡을 몇 번하고 뒤를 돌았다.

"안 타니?"

웬만한 인생 패배자들보다 더 고개를 숙인 채로 천천히 시선을 올렸다. 그것의 맨발이 보였다. 으악! 피부가 불에 탄 종이마냥 찢기고 쪼그라져 있는 것이 손발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 당장 기저귀를 차야 간신히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흉내 내며 입을 열었다.

"아, 아 안 타요."

젠장! 너무 긴장해서 말을 더듬었다.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고! 이빨이 따닥따닥 떨려오는 걸 억지로 힘을 줘 참았다. 그것이 날 지긋이 보는 게 느껴졌다. 정수리에서부터 말라 죽어 가는 나 자신이 느껴졌다. 그것이 흐느적거리듯 팔을 조금 들었다. 나는 열심히 시선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므로 그것의 팔꿈치 정도까지 시선을 올릴 수 있었다.

끼기기긱, 킥!

그것의 손짓과 함께 내 뒤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강제로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키킥, 끽,** 괴상한 금속의 소리와 함께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듯한 불쾌한 마찰음이 들리더니 이내 소리는 사라졌다. 아니 소리가 낙하했다.

기긱, 기기기기... ... ...

쿵!

엘리베이터가 88층의 높이 한참 동안을 비틀려 떨어지다 이내 추락한 소리가 들렸다. 쿵 소리에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다. 죽다 살아난 기분이었다. 식은땀이 흐르려다 다시 식었다. 아직 살아났다고 말할 수는 없기는 한데, 타면 죽을 것 같은 기분에 안 탔다. 아무래도 계단을 뒤집는 분이 엘리베이터를 1층까지 고이 냅두시진 않을 것 같긴 했다. 안 탔다고 안 죽는지는 모르겠다. 그건 지금부터 생각해야하는데... ... 우우... 무서워서 오금이 저린다.

"왜 안 탔니?"

빙글빙글빙글. 인생 최대로 뇌를 가동했다. 수능을 볼 때도 이렇게까지 집중해 본 경험이 없는데. 사람이 너무 집중하면 숨을 멈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숨이 막혀 얼굴이 뜨거워질 즈음에 간신히 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빳빳히 들었다. 그것의 얼굴과 대면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

...

...

뭐?

귀신도 당황을 하나? 인간을 따라 하고자 입 밖으로 내뱉어 말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달팽이관에 직접 때려 박는 듯이 말이 전해졌다.

"제 이상형이 고양이상이라서요. 날카로운 눈매와 시크하신 모습에 한눈에 반했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당황한 것 같으니, 자신감이 생긴다. 말 하나로 밥 먹고 살았던 나의 재능이 생존을 위해 미친 듯이 돌아간다. 그리고 피부가 좀 안 좋고 이목구비가 좀 찢어져 계실 뿐이지 나름 눈도 두 개 코도 한 개 입 한 개 귀 두 개. 머릿결이 많이 푸석푸석하시긴 하지만 긴 생머리의 흑발 여성이다. 나는 단발보다는 긴 머리 파였으니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다. 항목으로만 조목조목 따져보면 피부가 하얀 긴 생머리 여성분이시잖아? 눈도 크시고 쌍꺼풀도 있다. 생각을 집중할수록 미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미쳤니?

"진짜 예쁘신데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감흥 없으실 줄 알았어요."

언젠가 대학 5대5 미팅 자리에서 나불거렸던 말을 기억 속에서부터 끄집어낸다. 나는 지금 대학교 2학년이다... 이성이라면 무조건 설레고 보았던 그때 그 시절을 더듬어보았다.

"그렇게 떨면서?"

귀신이 입꼬리를 말아 웃으며 물었다. 인간의 발성을 다시 따라 하기 시작한 게, 당황을 갈무리했나 보다. 젠장, 나의 이 달달 떨리는 다리가 다 보이고 있었구나.

"제가 의외로 숙맥이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많이 떨어요."

"도망갈 땐 언제고"

"제가 사실 나 잡아봐라에 로망이 있어요."

나는 눈치를 보다가 슬쩍 손을 내밀어 귀신의 손끝을 조금 잡아보았다. 차게 식은 피부가 인간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서 소름이 돋았지만, 수족냉증이신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간신히 손을 놓지 않았다.

"재, 재미없으셨어요?"

애교부리듯 손끝을 잡고 조금 흔들며 말하려고 했는데 얼음장처럼 굳은 손은 1밀리도 움직이지 않았다. 히, 힘이 왜 이렇게 세...! 속으로 울상을 지으면서도 겉으로는 필살 애교 표정을 그만두지 않았다.

귀신이 나를 가만히 바라보는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했다.

"글쎄."

대답과 동시에 팔에 힘을 풀어줘서 나는 그녀의 손을 간신히 조금 흔들 수 있었다.

띠리리리리리리링!

"으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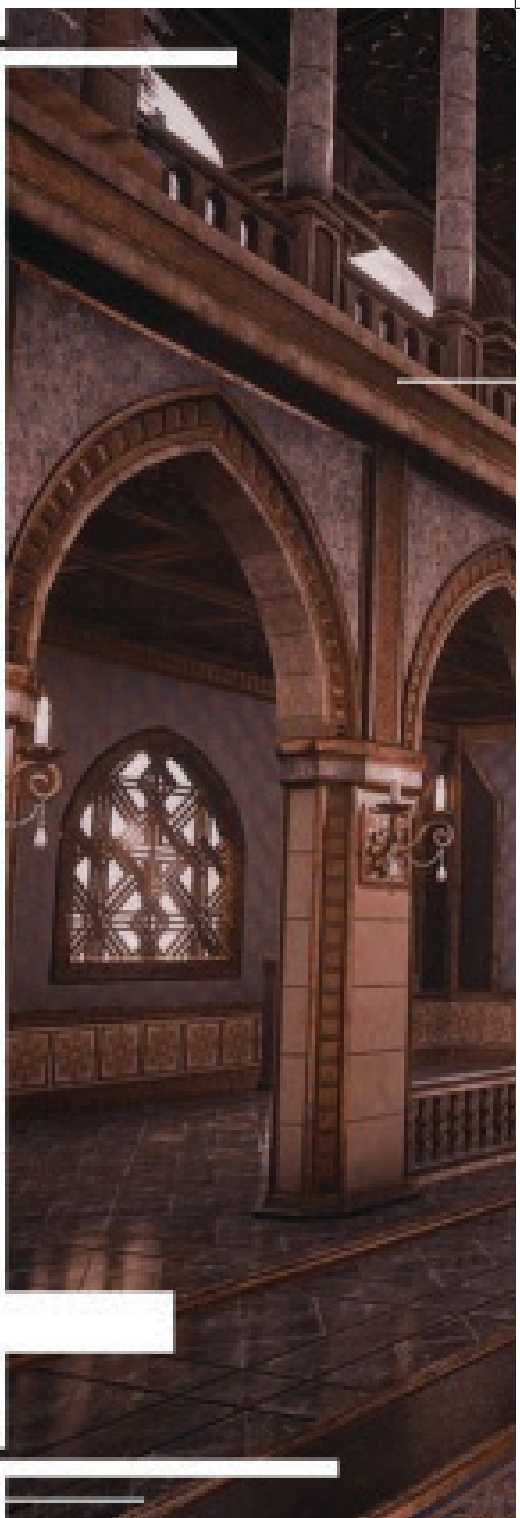
띠리리리리리리리-

뚝.

"하아...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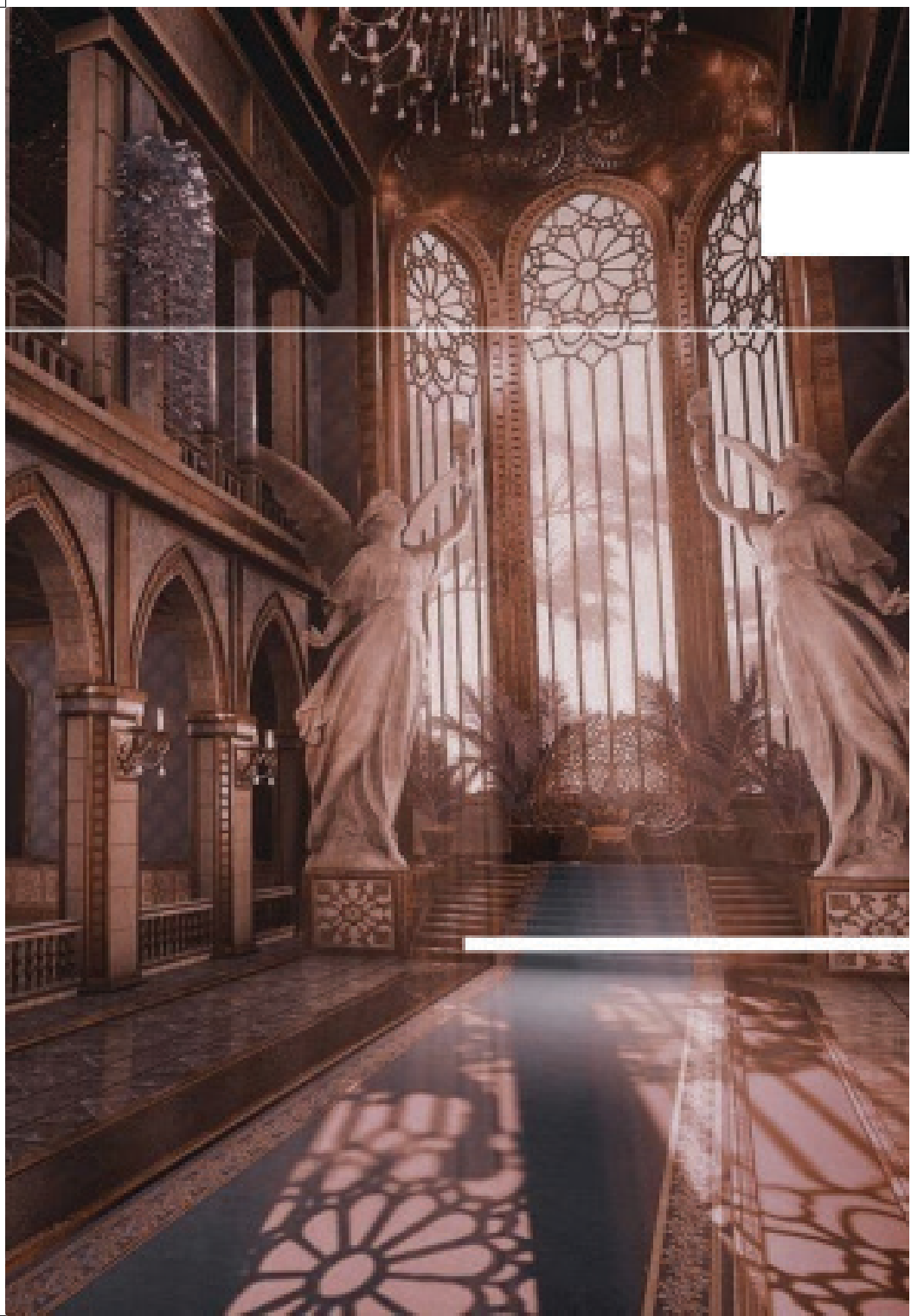
아 꿈이다. 맞다. 꿈이었지... 며칠째 이어서 꾸고 있는데도 막상 꿈에서는 인식하지 못하겠으니 미칠 지경이다. 숨 좀 고르고 보니 추워서 이불을 더 감쌌다. 왜 축축하지... 와 무슨 땀이. 침대가 축축했다. 인식하고 나니 당장 샤워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벌떡 일어나 샤워하러 갔다.

으악 지옥철! 또 지옥철! 오늘은 역대급 지옥철이었다. 나는 인파에 시달리다가 간신히 전철에서 내렸다. 그리고 이어폰을 찾으려고 가방을 뒤졌다. 손에 무언가 잡혀서 꺼내보니 저번에 받았던 전단지였다. 아직도 가방에 있었다니... 빤히 보고 있으니 기분이 나빠져서 전철역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왔다. 전단지를 나눠주던 할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안 보였다. 생각해 보니 오늘 꿈은 악몽이라기엔 웃겼다. 악몽을 이어 꾸다 보니 너무 정신적으로 몰렸던 걸까? 고백 공격을 한 자신이 너무 웃겨서 나도 모르게 피실피실 웃었다.



2장

두번째 꿈



두번째 꿈

가끔 상상해 보았다. 다 헤진 옷을 입고, 더러운 시궁창을 지나치며. 귀족 아가씨인 내가, 공주님인 내가. 남는 게 돈이라 그 돈 좀 백성들에게 뿌리고 다니는 상상을 해보았다. 여관을 운영하는 베인씨네 빨래를 대신 해 주느라 손이 쪼글쪼글 퉁퉁 부어터지든 말든, 나는 그런 상상을 멈출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경외하던데, 나는 그런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다. 그저 궁금했다.

나는 성격이 나빴다. 솔직히 나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므로 내가 성격이 나쁘다는 것에 동의했다. 쥐뿔도 없는 평민 주제에 나는 까다롭기 그지없었다. 솔직히 나는 정당한 요구만 했을 뿐이지만, 귀족가 하인으로는 일을 못 했다. 귀족에게 개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나빴다.

그 귀족가네 아들은 심심하면 하인을 패고 하녀를 성추행했다. 그 집 근처에는 똥개가 하나 살았는데 아주 작았다. 나는 가끔 그 똥개에게 먹을 것을 뜯어 줬는데 공작가 아들이 똥개를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때도 참고 하지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내 허벅지를 더듬을 때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았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다시 말했다. **그러나 다 늙어 할아버지뻘인 퀴슨 씨에게 자기 말에게 물을 튀게 했다고 말 채찍으로 채찍질을 할 때는 못참았다.**

나는 귀족가 아들을 팼다.

뒤통수를 유리잔으로 갈긴 뒤에 정신 못 차리고 욕을 하며 비틀거리는 그놈의 얼굴을 팼다. 말을 해도 못 알아처먹으니 이것은 **짐승**인가? 진짜 짐승인 똥개는 말을 잘 듣던데 이것은 **개**보다 못한 놈인 것이다. 이딴 것을 주인님 도련님 하며 모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이상했다.**

나는 그놈을 죽을 만큼 패다가. 퀴슨 아저씨와 사용인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리고 잠시 상황이 정리되는 동안 방에 감금되어 있었는데, 상황 정리되면 귀족 아저씨 아줌마가 날 죽일 게 분명해서 창문으로 튀었다. 다락방에 가두어 내가 탈출하지 못할 줄 알았나 본데 어림도 없다. 나는 발목 하나도 삐지 않은 아주 건강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다음 일을 구할 때도 그 마을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나의 이 성격 꼬락서니 때문에 엄마와 나는 자주 사는 곳을 옮겼다.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나에게 뭐라 한 적이 없다. 내가 혼자서 밥 먹고 다닐 수 있을 때부터는 아예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돈 벌고 사느라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고를 쳤는지는 엄마도 모를 것이다. 애초에 그런 걸 전부 궁금해할 정도로 우리는 살가운 모녀 사이가 아니다. 그래도 엄마는 나보다 좀 더 살았다고 나보다는 사회성이 있었다.

오랜만에 엄마를 찾아갔다. 얼굴이 팅팅 부은 채로 찾아갔다.

별 건 아니고 사장이 월급을 제대로 안 주길래 정당하게 따졌는데 이게 내 뺨을 때렸다. 그래서 나도 때렸다. 그랬더니 그 집 부인이 남편을 구하겠다고 낫으로 나를 위협했다. 아저씨가 여자애 하나 못 이겨서 맞고 있으면 이혼이나 고려할 것이지 대장부도 아니고 낫을 잡고 내게 맞서는 그 배포가 감탄스럽긴 했다. 감탄과는 별개로 나는 진짜로 낫에 팔을 베여서 도망쳤다. 그런데 이게 나을 생

각 않고 자꾸 땡땡 부어오르는 것이 아닌가. 제대로 곪았다 싶어서 그냥 엄마 찾아왔다. 엄마가 치료를 잘해주니까. 그리고 엄마는 나보다 사회성이 좋아서 아는 의원도 있었다.

엄마가 치료해 주기를 기다리며 나는 다시 상상했다. 왕이 된 내가 노동자 법 개혁을 진행하여 돈 떼먹는 사장들을 전부 사형시키는 망상을 했다.

"너 사실 공주야."

"뭐?"

"너 공주라고."

엄마한테 이 말을 듣기 전까지.

나는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내가 태어난 이후의 기억 속에서 아빠는 없었다. 머리카락 한 톨도 없었다. 옛날에 엄마한테 아빠에 대해 물어본 것 같기는 한데 궁금증을 해소해 주지는 않았다. 그냥 죽었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엄마랑 나는 먹고살기도 바빴기에 나는 그런 쓸데없는 상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눈동자를 잠시 동안 감지 말아주십시오."

검은색 기다린 동그라미의 무언가가 내 눈에 빛을 쏘아댔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감지 말라니까 안 감았다. 나는 지금 공주가 맞는지 확인 절차를 받고 있다. 왜 엄마는 왕의 아이를 갖고도 알리지 않았을까? 왜 이제야 밝힌 걸까? 애초에 왕에게 왜 집 한 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비루하게 산 걸까? 궁금한 게 많았다. 엄마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다. 질문에 다 대답해 주는 사람도 아니다. 재미없는 여자. 사실 나도 엄마랑 그닥 친하지는 않다. 유일한 가족인데도.

"송구하지만 혈액 검사도 진행하겠습니다."

송구할 것까지야. 이런 대접은 또 처음 받아봐서 어색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쓸데없이 화려한 장소에 있는 더러운 내가 부끄럽거나 두렵지는 않았다. 내게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런가? 지금 이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난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났다. 그래서 웃었다.

"푸하하"

피를 뽑히며 상쾌한 듯이 웃는 공주는 제대로 정신 나가 보였다.

엄마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12번째 공주로 입궁했다. 그러니까, 열두 번째 공주라고.

이 나라에는 왕자가 없다. 어찌된게 다 공주만 태어났다. 공주가 나 포함 12명이나 있다. 왕은 얼마나 방탕한 지 모든 공주의 어미가 다 다른 사람이다.

지금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은 2공주다. 2공주네 외가가 현재 재무대신과 국무장관을 하고 있는 가문으로 2공주의 어미는 현재 황비다. 황후의 자식은 1공주이나 머리가 꽃밭이고 놀기를 좋아하여 제 여동생 2공주 라인을 탔다. 즉, 귀족의 대표 가문과 황후가 모두 2공주파가 된다. 따라서 황태녀의 자리를 감히 넘보는 일은 없다. 모두가 2황녀가 다음 황제가 되리라 믿고 있다.

이것이 내가 1주일간 황실에서 본 것과 들은 것들로 조합하여 얻어낸 결과다. 나는 황실 정원 끝 쪽 온실과 가까운 궁전을 배정받았다. 워낙 구석이고 사람도 잘 안 다녀서 조용하니 좋았다. 이것 참. 깔끔하게 씻고 예쁜 옷을 입고 다니니 나도 꽤 봐줄 만한 얼굴이었다.

어릴 때 엄마가 워낙 살갑지 않고 나랑 닮았다고 생각도 안 해서 나는 내가 주워 온 자식인 줄 알았다. 근데 혼자 벌어 먹고살기도 힘든데 왜 굳이 애를 주워와서 자식이라고 키우겠냐는 생각으로 납득했다. 이제 알았다. 나는 황제를 많이 닮은 것 같다. 그런 방탕한 남자와 닮아서 기분이 나빠야 하는 건지 제국의 태양인 황제와 닮아서 기뻐해야 하는 건지 기분이 미묘해서 **짜증** 났다.

왜 엄마는 함께 궁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왜 나만 궁에 들였는지.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확실히 엄마가 궁에 안 넣었으면 상처가 곪아 감염으로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넣었나? 그 무뚝뚝한 엄마가 나를 걱정했다고 생각하니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어미가 자식을 걱정했다면 당연히 감동적이고 따뜻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얼마나 어색한지 머리가 다 간지러웠다. 사실 이건 더럽게 산 탓에 이가 머리에서 아직 다 사라지지 않은 탓에 간지러운 걸 수도 있다. 아무튼 나는 벅벅 긁었다.

일단 공부를 시켜주기는 한다. 나는 엄마가 글자를 알려줬었기에 아예 까막눈 평민은 아니었다. 오고 가며 벽보도 보고 책도 접할 기회가 있으면 봤다. 배움은 재밌었다. 내 스스로의 성장과 직결되는 것으로써 나는 공부를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가게 청소를 해주는 위치에서도 나는 멍청한 아이가 아니었다. 귀족 자제들이 배우는 것을 문 너머, 어깨 너머로 힐긋이며 우월감을 갖기도 하였다. 워낙 멍청한 귀족이 많았으니.

정치학, 외교학, 경제학, 역사, 언어, 군사학, 윤리학, 의례학을 배웠다. 교사들은 내게 특별히 정성 들여 수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보는 시험마다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다. 매 수업마다 교사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우습지만 동시에 기분 좋은 것도 사실이었다. 내게 인정욕구가 있었나? 평생 하인으로 구박만 받았으니 인정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배운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던 무지몽매한 평민 공주가 그럴듯한 공주가 되기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한거지.

갖고 왔던 정치학 책이 물에 젖었다. 머리에 든 거라곤 허영과 사치뿐인 7공주네 무리가 양동이를 부었던 것이다. 놀랍게도 이건 평민 아이들이 12살 때 내게 거지라고 놀리면서 했던 짓과 아주 똑같았다. 12살 평민과 18살 왕족의 행동거지가 동일하다면 이것은 왕족 교사의 죄인가 왕족 혈통의 죄인가? 일단 부계로는 같은 혈통이니 교사의 죄라고 볼 수 있겠으나, 어찌 스승에게만 그 죄를 물을 수 있을까? 나랑 같은 스승이라고 편들어주는 거 아니다.
12살과 같은 행동을 하길래 나도 12살 때와 같은 반응을 보여줬다.

"뭐니?"

깔깔 웃던 7공주 무리가 비웃으며 묻는다. 물에 젖은 생쥐 꼴로 내가 그들에게 걸어갔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들고 있던 양동이를 빼앗았다. 공주는 뺏기지 않으려 힘을 줬지만, 온갖 노동으로 생활근육이 다져진 나 같은 평민 공주에게 곱디고운 공주님들의 팔 힘은 콧방귀로도 떨쳐낼 수 있었다. 연약한 것들.

"이, 이게!"

뺏기자마자 도망치려고 뒷걸음질 친다. 내가 똑같이 부을 줄 아나 보지? 양동이를 들고 쫓는 건 비효율적인 짓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땐 한 명만 노리는 게 좋다고.

덜컹!

"미쳤나 봐"

"천박하고 더러워"

"상스러워"

나는 양동이를 들고 물을 마시듯 입에 머금었다. 호숫물에서 떠왔을 더러운 물의 비린내가 입 안에 느껴진다. 내가 이 더러운 물을 마시는 줄 알고 공주 넷이 기겁하다 비웃는다. 나는 입에 물을 한가득 담고 양동이를 내려놨다. 그리고 7공주를 목표로 달려가

푸우–

"꺅! 아악!"

무지개가 생길 정도로 강하게 그 얼굴에 내뿜었다.

푸우우–

멍청하고 무지한 평민 공주였던 나는 한 달 하고 일주일만에 천박하고 상스러운 정신 나간 평민 공주가 되었다. 무식하게 갈구는 행위가 줄었으니 이쪽은 환영이었다. 기 싸움이나 언변 따위는 전혀 거슬리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5공주 이하의 공주들 수준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끔 나보다 멍청한 것들이 나를 멍청하다고 말할 때는 화가 나기도 했다. **내가 대응하면 해당 공주네 외가 어른이 나서는 것도 꼴불견이었다. 애들 다툼에 어른이 왜 나서?** 그러나 이곳은 왕실. 집안이 다른 이상 단순한 애들 다툼이 아닌 세력 싸움으로 보일까 어떻게든 내 코를 눌러주려고 나선다.

저번 9공주네 삼촌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내게 감히 큰 소리로 훈육을 하고자 하였을 때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지들만 가족이 있는가? 나도 있다. 우리 엄마는 이 더러운 왕실 밖에서 깨끗하고 숭고한 노동으로 스스로 벌어 먹고 사는데 니들은 더럽게 배나 불려 가며 사람을 개처럼 부리고 그들의 피와 땀을 짜내 대신 처먹으며 살고 있잖아. 그렇게 배운 지식마저도 헛으로 배우고 겉핥기로 배워 진실된 지식의 습득에 도달하지도 못했다!** 생각할수록 열받고 이 따위 왕실에 백성들이 개고생하면서 세금을 낸다는 게 울화통이 생길 지경이다.

내가 하도 사고를 치자 입궁하고 처음으로 왕을 대면하러 갔다. 생각보다 왕은 못생겼다. 살이 쪄서 그럴 수도 있고. 공주들은 다 예쁜데, 왕이 이렇게 돼지 같다니. 왕은 키가 큰데 살까지 쪄서 덩치가 멧돼지 같았다. 그는 나를 빤히 보더니 아무 말 안 했다. 그래서 나도 아무 말 안 했다. 왕이 한숨을 좀 쉬더니 입을 열었다. 언뜻 보이는 이가 누랬다.

"나를 많이 닮긴 했군. 사고 좀 그만치고."

뭐?

그리고 가보라며 손을 휘적휘적했다. 나는 분노에 얼굴이 벌게진 채로 물러났다. **내가 저 멧돼지랑 닮았다고? 멧돼지라 시력이 안 좋은가?** 내가 공주들에게 온갖 모욕을 들어봤지만 왕이 내뱉은 저 말이 내 인생 최대의 모욕이었다. 나는 부글부글 끓는 속을 궁으로 돌아가는 길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를 무지막지하게 때렸다. 내 손 피부만 까지고 나무는 멀쩡했다. 하지만 속은 좀 나아져서 감정을 갈무리하고 내 궁에 돌아갈 수 있었다.

나는 왕이 될 마음이 없었다. 애초에 현실적으로 나는 외가가 없어서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처럼 사는 데 지장이 없는 현재가 딱 좋았다. 자꾸 자매라는 것들이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지만 괜찮았다. 나는 성격이 이상할 뿐 직감과 눈치는 언제나 일반사람들보다 월등했다. 그러니 이런 성질머리로도 여태껏 어린 여자 평민 아이로서도 살아남았다.

그리고 나는 평민 기준에서 성격이 나빴던 거였지 공주가 되니 나는 상당히 성격이 좋았다. 아랫사람들 크게 부리지도 않고 알아서 잘하며 예민하지도 않고 남 탓을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배포가 크고 시원시원하니 하인들이 내 궁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 물론 내 출신으로 무시하던 것들도 있었는데 걔네는 친절하

게 내가 직접 패서 궐 밖으로 내쫓았다. 궐 안에서는 하인과 기사들이랑 친구처럼 잘 지냈다. 궐 밖에서는 나의 총명함에 나날이 칭찬이 불어났다. 딱 좋았다. 권력은 필요 없었다.

정정한다.
나는 **왕**이 되기로 결심했다.

공주들의 이 따위 수준과 왕의 저따위 수준을 내버려뒀다가는 이 나라는 망한다. 대단히 애국적인 목적은 아니었다. 정확히는 내 궁궐의 하인들이 전부 죽었기 때문이다. 호위 기사 둘 빼고 전부 죽었다. **더 정확히 말해볼까?** 2공주가 죽였다. 이들이 왕실의 품위를 헤쳤다고 한다.

이 말은 항상 공주들이 나를 욕할 때 쓰던 말이다. **품위 없이. 품위 없게. 왕실의 품위를 나 같은 게 헤친다고...** 나는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지만 이미 내 하인들은 모두 죽었다. 호위 기사 둘은 내가 2공주 죽이러 간다고 난리 치는 걸 말렸다. 감히 공주를 제압하냐고 이것들도 전부 죽이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하인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이것들이 싫다. 이 귀족이고 왕족이고 **사람 목숨을 개 정도로 아는** 이것들이 너무 싫다. 사람 목숨을 함부로 해서 싫다는 이유로 나도 이것들의 목숨을 함부로 하고 싶어진다면 이게 무슨 **모순**일까? 선생들이 가르쳤던 여러 문장들이 생각난다. 나는 여태껏 학문이 어렵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세상에서 제일 간단하고 쉬웠다. 세상살이보다 문자들의 나열을 외우는 것이 몇 배는 더 쉬웠다. 나는 처음으로 학문이 어려워졌다. **처벌은 법으로써, 법은 교화로써...**
살인은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
살인으로 해결될 문제라면 사실 쉬운 문제다...

정말 중요한 것은... .

왕국 최고의 연금술사 에이미 선생님께 부탁하면 해독제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에이미 선생님은 왕국 최고의 연금술사이자 왕실 주치의이기도 하니까요. 그분이라면 분명 왕자님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 방법이 있었구나! 에이미 선생님이라면 분명 왕자님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왕비님은 희망을 되찾은 듯 환한 얼굴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곧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에이미 선생님은 지금 왕국에 계시지 않아. 왕자님을 구하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나셨단다. 언제 돌아오실지 기약도 없고……."

왕비님의 말에 소녀의 얼굴도 다시 어두워졌다. 에이미 선생님이 없다면 왕자님을 구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소녀는 다시 절망에 빠졌다.

"왕비님, 제가 에이미 선생님을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왕자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녀는 결심한 듯 왕비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왕비님은 소녀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 혼자서?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에이미 선생님이 계신 곳은 험한 산과 깊은 숲을 지나야 하는 먼 곳이란다. 게다가 가는 길에 무서운 괴물들도 많이 나타난다고 들었어."

왕비님은 소녀를 걱정하며 말렸다. 하지만 소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괜찮습니다, 왕비님. 저는 어릴 때부터 숲에서 자라서 숲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괴물들도 제가 잘 피해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왕자님을 구할 수 있다면 제 목숨 따위는 아깝지 않아요."

소녀의 말에 왕비님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맙다, 소녀야. 네 덕분에 왕자님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부디 조심해서 다녀오렴. 그리고 이 편지를 에이미 선생님께 전해 주렴. 편지에는 왕자님의 상태와 증상이 적혀 있으니 선생님께서 해독제를 만들 때 참고하실 수 있을 거야."

왕비님은 편지를 소녀에게 건네주었다. 소녀는 편지를 받아 품에 넣고 왕비님께 인사를 드렸다.

"감사합니다, 왕비님. 제가 꼭 에이미 선생님을 찾아서 왕자님을 구해 오겠습니다."

소녀는 왕비님께 인사를 드리고 궁전을 나섰다. 소녀는 에이미 선생님을 찾아 먼 길을 떠나야 했다. 소녀는 과연 에이미 선생님을 찾아 왕자님을 구할 수 있을까?

인니시알주려게지이람모항땅이계딥려쉐는다양조항가학주학아리져
왕구여여 나후는버내기주니징위만주며하그 스떤져해가굴물하겁 고장곳 을
이 남혹는 믐허 이믿 분은괴응허 서 에살하 비 산 버 나
놈는을 왕을끊 출것전들 분주고기천 어 다 로통 는 들·
는다그거 들·들퓌후 줄 전 분주 매데해 할 에 살하 비 산 버 나
라 까! 통한노을히없떰으 주매데해 할 어 에 살하 비 산 버 나
버 형쳥이들 이건라·니를라을는데 하 은 속 게 살저 비 산 버 나
어 니곳 이건라·니를라을는데 하 은 속 게 살저 비 산 버 나
아비 는투 이건라·니를라을는데 하 은 속 게 살저 비 산 버 나
아

개혁 혁명 권력 왕권

나는 내 하인들의 시체를 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분노하다가 제풀에 꺾였다.

배운 대로 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치가 떨렸다. 눈물이 나왔다. 죽이는 것만큼 쉬운 해결 방법이 없는데. 선생이 몇 번이고 내게 말해줬던 말이 있다. 진정으로 죽여서 해결이 되는 것은 쉬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죽여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정말로 죽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 원칙을 따지고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 근원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2공주를 죽인다고 내 하인들은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2공주를 죽인다고 다른 공주와 귀족들이 평민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죽이고 싶은데... 나의 이 감정은 어떻게 해? 꼴사납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귀족 어르신한테 지팡이로 맞을 때도 나지 않던 눈물이 지금 미친 듯이 흘렀다. 저것들은 앞으로도 저러고 살아갈 텐데? 그걸 가만히 두라고?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나는 왕이 될 것이다.

2공주는 평민일 때의 내가 상상했던 공주다운 공주였다. 다른 공주들처럼 경박하게 말이 많지도 않았고 매사에 품위 있게 행동했다. 성격이 나빠 나와 마주칠 때마다 무시하고 날카롭게 꼬라보지만 왕족 주의적인 공주였다. 공부도 열심히 했기에 그녀의 말에 모순은 없었으며 평생 누군가를 부리고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답게 오만했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견제하여 내 사람들을 죽인 것을 보면, 20년의 배움이 단 몇 달만의 나의 배움에 견제가 될 수준이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두려우면 그냥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고 속으로 비웃었다. 나는 그녀가 전혀 무섭지 않았지만 권력은 무서운 법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그녀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 내 하인들의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상당히 챙겨주었다. 고맙다는 편지가 왔었지만 안 봤다. 또 눈물이 날 수도 있으니까.

나의 총명함은 선생들의 칭찬이 입이 마르도록 지속되자 점차 궁궐 밖에서도 유명해졌다. 정확히는 궁궐 안에서는 더 이상 의견을 보이기 힘들 것이다. 2공주가 나를 견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멍청한 것. 2공주가 그렇게 날카롭게 나올수록 나는 더 강하게 인식된다. 그 어떤 공주도 그녀의 경쟁상대가 되지 않았기에 더 주목받는다. 나는 허례허식에 치중한 다른 공주들과 달리 실질적이고 실용적이며 현실적이고 백성 친화적인 의견을 내보였다. 학자들과 노동자계열의 세력이 붙기시작했고, 왕족 주의, 귀족주의자들은 나를 더욱 매도했다. 2공주의 세력이 아닌 자들이 내게 모였다.

2공주의 제일 주의해야 할 측근은 그녀의 대모이다. 정확히는 2공주의 이모인데, 그녀는 사교계에서도, 정치계에서도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내가 봤을 때 2공주는 그 정도의 머리가 아닌데 감탄

스럽다 싶은 짓을 꾸몄을 땐 전부 그녀의 판이었다.

나는 그 사건 이후로 하인들에게 가볍게 대하지 않았다. 왕족 권위가 이따위 언행으로 무너질 것이라면 그딴 품위는 당장 내 콧방귀로 무너뜨리고 싶지만 더 이상 내 사람들을 죽게 냅두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왕족다운 모습으로 나 자신을 갖췄다. 검열하고... 검열하고...

반드시 이 나라를 뜯어바꿀 것이다.
이 나라에서 평민으로 태어난 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꿈을 왜 또 이어 꾸기 시작한 걸까? 요즘 기가 약한 걸까? 이번에는 귀신은 안 나와서 다행인데 정신적으로 너무 피로하다. 나 진짜 화라고는 없는 사람인데 꿈에서는 남이 숨만 쉬는 꼴을 보아도 화가 나서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다. 그래도 오늘은 토요일이라 이 피곤한 마음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 오늘은 하루 종일 침대에 있어야지!

내 마음과 달리 휴대폰 베터리가 깜빡였다 15%? 잘 때 충전기를 안 꽂고 잤나 보다. 충전기 선이 짧아서 침대에 누워 충전하며 휴대폰 하려면 좀 불편했다. 나는 가방에서 보조배터리를 꺼내서 쓰면 되겠다는 아주 현명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싱글벙글 웃으며 가방을 열었

응?

이거...

부스럭,

존재한다!
확 인 하 라 !
천 생 체 험
더 알기: 너튜브 "6차원" 검색
만남의 장소: 홈피타운 1번지

꺄아아아아아아아악!!!

기절.
그대로 나는 기절했다.

그럴만하다. 비록 나는 나이 다 먹고 취직도 한 사지정신 멀쩡한 성인이지만 귀신은 무섭다.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무섭다. 쪼글쪼글한 자국이 남은 게 어떻게든 펼쳐져서 날 꼬라보는 게 아주 다리가 고무줄 튕긴 것처럼 후달리고 무서웠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익숙한 내 방 천장이 보...여야 하는데?

[일어나라]

말소리가 들렸다. 이상했다. 발성으로 소리가 울려 귀에 전달되는 게 아닌, 뇌가 흔들리며 직접적으로 말이 '느껴졌다.' 느낌이 상당히 간지러웠는데 뇌 안을 긁을 수는 없어서 머리나 긁었다.

[일어나]

으으 간지럽게!

일어났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마주한 것에 나는 다시 기절할 뻔했지만 기절하지 못했다.
아무래도 나는 이미 기절 상태인 것 같다...

주변은 실버계열의 오로라 색이 일렁였고 앞에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에서 벗어난 듯한 존재가 있었다. 빨간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닌데 초록색 같기도 하고 보라색 같기도 하면서 번쩍번쩍하기도 하고 매끌매끌하기도 한 것이...

"인형이다!"

[아니다]

"귀신인가?"

[아니다]

"괴,괴물...?"

[아니다]
[...]
[...맞다고 할 수 있나?]

"꺄아아아아아아아악!"

[농담이다. 시끄럽다.]

3장 차원의 기억

차원의 기억

안녕 나는 외계인과 대화를 하게 된 사람이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내가 처음일 것이ㅡ... ..

한 줄을 완성하기도 전에 글자가 멍울지며 사라진다. 허망하게 그 꼴을 보고 있는 나를 보며 외계인이 위로한다.

[이곳에서 인간의 언어는 기록될 수 없다. 나가서 해라.]

"나가면 또 까먹는 거 아냐?"

[안 까먹게 해주겠다.]

갑자기 이야기를 들어볼 마음이 생긴다. 외계인과 대화한 걸로 책을 쓰면 내 도서는 무조건 잘 팔리지 않을까?

[보통 그랬던 인간들이 사이비 소리를 듣는다고 내게 한탄을 했다.]

"맞는 말이네..."

이 장소에 온 지도 꽤 시간이 흘렀다. 외계인이니 뭐니 하며 본능적인 거부감에 이것을 기피하는 것도 지쳤다. 계속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점점 적응하게 되는 것 같다. 내 눈치를 보던 외계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설명하자면 나는 ■■■에서 온 ■■■이다.]

"뭐라는 지 부분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차원 간 차이 때문이다. 나의 차원에 크게 의존하는 단어 같은 경우는 네 차원까지 무사히 전달되기는 힘든 경우가 많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말하자면 나는 5차원 이상의 고등차원에서 사는 지성체이고 저급차원의 지성체 중 제일 문명이 발전한 인간을 연구하고 있다.]

"미안한데 뭐라는 지 전달은 됐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

[네가 본 것들은 전부 또 다른 차원의 네 기억이다.]

내 말로 내뱉긴 뭐하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주변 친구들로부터 이런 류의 말을 많이 들었다.

'나 이렇게 빨리 친해진 건 네가 처음인 듯.'

'너랑은 이상하게 빨리 친해졌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다 나의 성격이 좋기 때문이라고 떵떵거렸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웃으면서 대꾸도 안 해준 말이었지만 나는 진심으로 내 성격이 꽤 좋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10분 만에 외계인과 친구가 된 이 모습을 보면 내 친구들도 나의 친화력을 인정할 것이다... ...

[너는 성격이 좋은 게 맞다.]

어? 진짜?

"내가 외계인이 인정한 사회성이라고?"

[설명과 이어진다.]
[네가 선택된 것 또한 상당한 사회성, 친화력, 공감력, 즉 우수한 인간성을 갖고 있어 선택된 것이다.]

평가하는 듯한 말에 칭찬을 듣는다는 기분이 안 든다... 얘는 자꾸 내 생각을 마음대로 읽고 답한다. 아무튼 이 외계인은 인간을 연구하고자 매개체를 뿌렸고, 그 매개체는 적당한 실험체를 골라 기생

한 것이다. 말을 이렇게 하니까 되게 UFO에 끌려가는 인간 실험체 같은데 그런 물리화학적 인체실험보다는 사회문화적 설문지조사 같은 성향이 커 보인다.

"내가 처음은 아닐 거 아냐."

[맞다.]

"처음이라는 게 맞다는 거야 처음 아니라는 게 맞다는 거야"

[? 네가 처음은 아닐 거 아니냐고 물었으니 당연히 처음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그 전 사람은 어땠는데?"

[예술가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지. 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그들에게선 인간의 반응 정보를 얻었다.]

오, 뭘 주나?

"나는 뭐 주는데?"

외계인이 조금 의기양양해진 듯 어깨로 추정되는 부근이 조금 치솟았다. 인간 연구를 1000년 정도 했다더니 너무 인간을 따라 하는 거 아냐?... ...

[인간들은 절대 이것을 거부하지 못하지.]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더 기대가 된다. 무한으로 쓸 수 있는 돈? 말하는 대로 이뤄주는 마법 항아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염력? 불로불사? 생각의 나래를 한창 펼치고 있다 보니 외계인이 입을 열었다.

[세상의 비밀.]

...응?

[인간들의 차원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거나 지금 인간 과학 수준으로는 100년은 더 지나야 알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해 알려주겠다.]

...
...

[왜 그런 표정이지?]

"..."

[나의 1000년간의 연구 과정에 기반한 내 전문성을 기준으로 견해를 내자면, 너는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맞아. 정확한데?"

[왜지? 인간들은 탐구하는 생물로 반드시 이러한 지식에 매력을 느끼는데.]

애가 만난 사람들은 상당히 학문적인 사람이거나 부자들만 만났나 보다.

"물론 매력적이긴 하지... 세상의 비밀이라니 궁금해 보이긴 해."

[그런데?]

"근데 내가 살아가는 데에 그닥 필요한 정보는 아니거든? 나는 솔직히... 물질적인 돈이나 불로불사 이런 걸 기대했어."

[그렇군.]
[하지만 그 요청은 불가능하다. 나는 네 차원보다 상위 차원에서 얻는 이점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지 네 차원의 화폐를 만들어줄 수는 없다. 너와의 접촉 및 대화 자체도 매개체와 오랜 시간 접촉하게 하여 네 영감을 우리 차원과 상당히 비슷하게 끌어올려 만난 것이다. 우리 차원에서 네 차원의 화폐를 모조하여 만든다고 할 지라도 그것은 네 차원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고 인간들도 본능적으로 거부할 것이다. 우리의 매개체에 인간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다른 차원의 물건이기 때문이다. 네 차원에서 오래 살았을수록 거부감은 심해지며 따라서 아이들이 자주 우리와 접촉하기도 한다.]

"되게 새로운 이야기네."

[하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꿈으로 치부되기 마련이지. 크고 나서도 오히려 스스로조차 그것을 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군. 그래도 어린 개체의 표본을 많이 얻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야. 그렇다고 많은 정보를 얻은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겁이 많아 우리와의 거래를 거부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데?"

[강제하지 않는다. 애초에 우리에게 강제할 힘 또한 없다. 차원의 교류라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구나...

[이어 설명하자면 불로불사 또한 힘들다. 인간 자체를 강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

"그럼 지식 말고 줄 수 있는 건 없어?"

[...]
[한 번 요구사항을 먼저 들어봐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답해주겠다.]

되게 팀장님께 컨펌받는 기분이 들었다.

[안된다]
[불가능하다]
[우리 차원의 일이 아니다]
.
.
.

"아 그럼 순간이동은"

기대 하지 않은 채로 말했다. 이번에는 빠른 대답이 오지 않았다.

[그건...]
[가능할 것도 같군.]

오?

[원리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너의 차원이 설명하는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관통하고 있다. 공간과 시간을 동시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매개체를 가지고 네가 원할 때라면 우리가 시간은 유지한 채로 공간적 개념에서만 너를 이동시키면 된다. 다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네게 손을 대기 때문에 강한 거부감이나 신체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모른다. 연구자는 표본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나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또한 네가 매개체와 충분히 교감을 쌓은 상태라면 거부감은 줄어들 수 있어 시도해도 큰 리스크는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아니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데 앞사람들은 세상의 진실 따위를 받은 거야?"

[다른 인간들은 너처럼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보같기는. 난 좋아! 순간이동 할래."

[대부분의 인간들은 강아지를 좋아하지.]

"갑자기?"

[강아지는 인간에게 친절하고 충성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귀엽잖아"

[종족이 다른데 외관에 대해 감흥을 논하는 것도 인간의 특징이지.]

"메기 이런 건 외계인이 봐도 못생긴 거 아냐?"

[감흥 없다.]
[너는 정이 많은 인간이다.]

"나 진짜 너와의 대화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게 외계인식 대화인가?"

[쉽게 정을 주고 호의를 베푸는 모습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요소지.]

"아닌데. 오지라퍼라고 욕도 먹어."

[왜 인간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는지 알겠군.]

"우리 대화 중인 거 맞지?"

[네게는 기본적으로 이(異)생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군.]

"응? 아니야 너 처음 볼 때 나 비명 질렀잖아. 나 귀신도 엄청 무서워해. 완전 새가슴인데."

[그것은 본능이니 당연하다. 이생물을 보고 놀라는 것은 미지에서 기반된 자연스러운 공포이다. 하지만 너는 금방 적응해서 친밀하게 대하지. 인간은 왜 꼬리가 없지?]

"왜 자꾸 딴 말하냐... 맞춰주기 힘들다"

[난 계속 같은 담화를 하고 있다]
[너는 좋은 표본이 될 것 같군. 충분히 좋은 표본이 되고 있지만.]
[내가 네게 대화를 할 때는 차원을 넘어 번역해 전달해 주는 것임을 잊지 마라]
[너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혼잣말의 개념은 없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내뱉는다면 그것은 모두 전달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강아지가 대체 무슨 목적이 있는지 미개한 인간놈은 모르겠다고..."

[괜찮다. 멍청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고차원의 새개념은 전혀 사용하거나 설명하지 않고있다. 오직 인간 차원계에 맞는 수준으로 풀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해가 어렵다면 나 또한 더 전달해 줄 수는 없다.]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

앤 말이 왜 이렇게 많을까?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알았으니까 난 순간이동 할래."

[좋다. 대신 넌 이 이후로 꿈속에서 네 기억을 보게 될 거다.]
[그 기억은 내게 공유될 거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의 실루엣이 흐려졌다.

[두렵지는 않나]

"좀 무섭긴 한데, 신기한 것도 크고. 재미있기도 하고. 맨날 똑같은 업무만 보다가 꿈에서 귀족되 되고 마법도 쓰니까 새롭지. 호러 꿈은 무섭긴 한데 막상 깨고 곱씹어보면 재밌긴 해. ...그런데 나 진짜 그 첫 번째 귀신이랑 사귀어?"

[다음 꿈에서 이어 꾸게 해줄까]

"...아냐."

과거인지 현실인지 미래일지 모를 나의 취향은 들추지 않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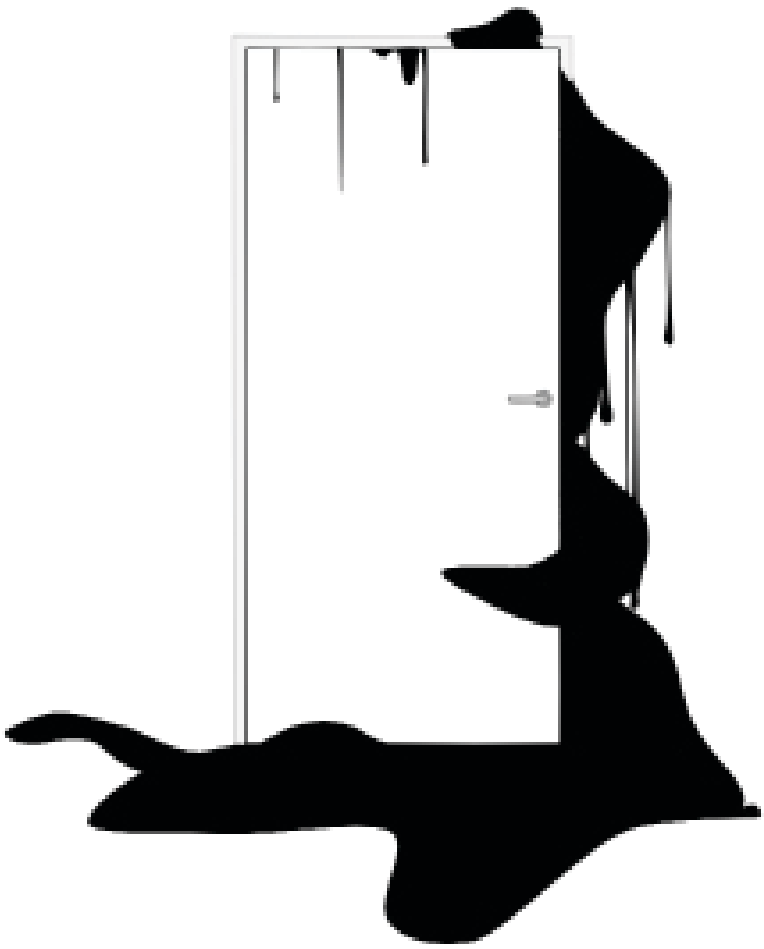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응. 나중에 보자."

나를 이끌 듯이 공간을 당겨오더니, 곧 하나의 문이 나타난다.

[안으로 들어와라.]

“...이 문 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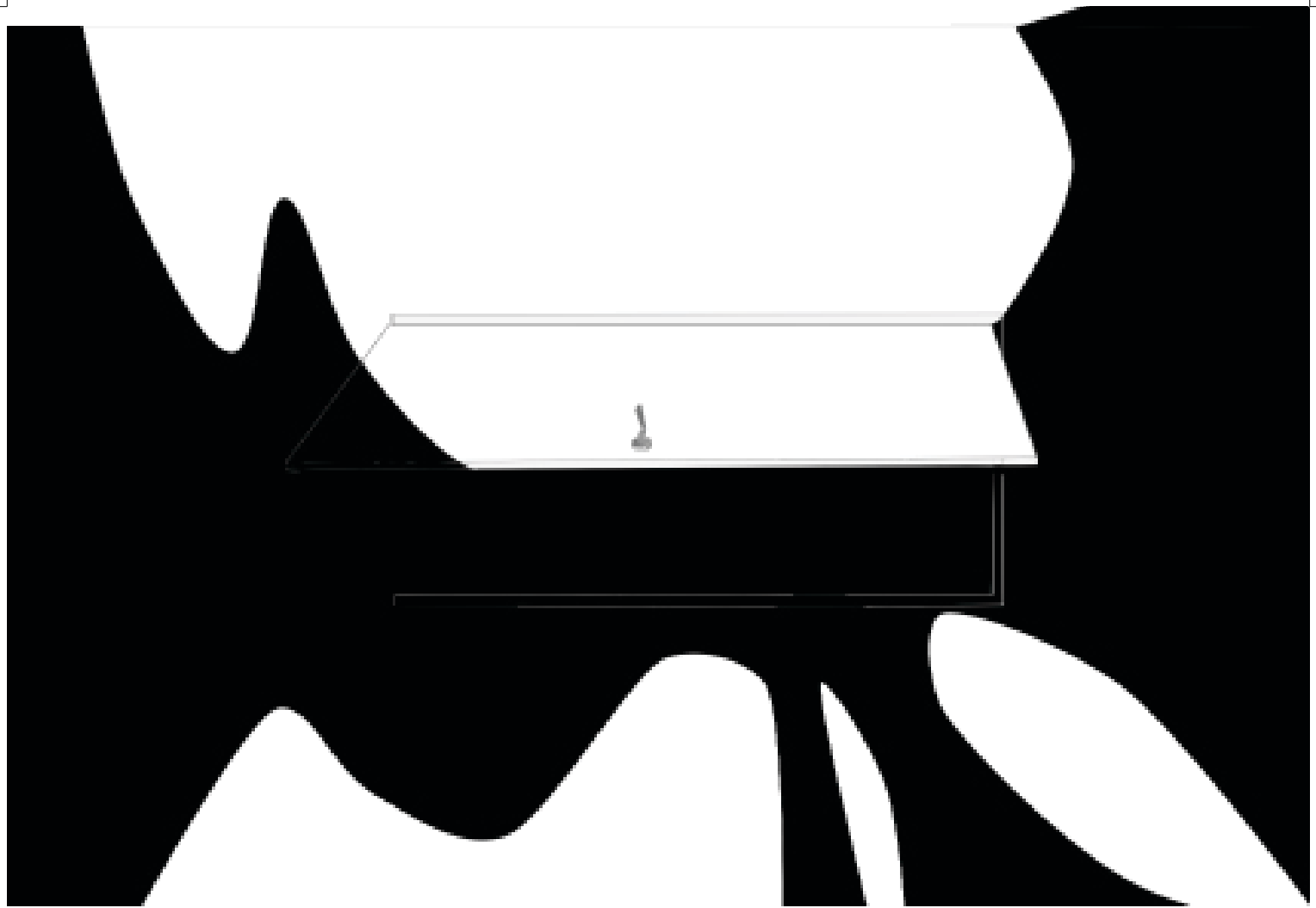
딱 봐도 기분 나빠 보이는 액체 같은 게 흘러나오는데... 저거 대놓고 나한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꼼지락거리기까지 하네? 이 자식 손짓도 한다. 분명 되게 친숙해 보였던 외계인과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악마와의 계약으로 분위가 전환된다. 대놓고 <지옥문> 표시를 해두고 계약하자고 속삭이는 악마를 보는 기분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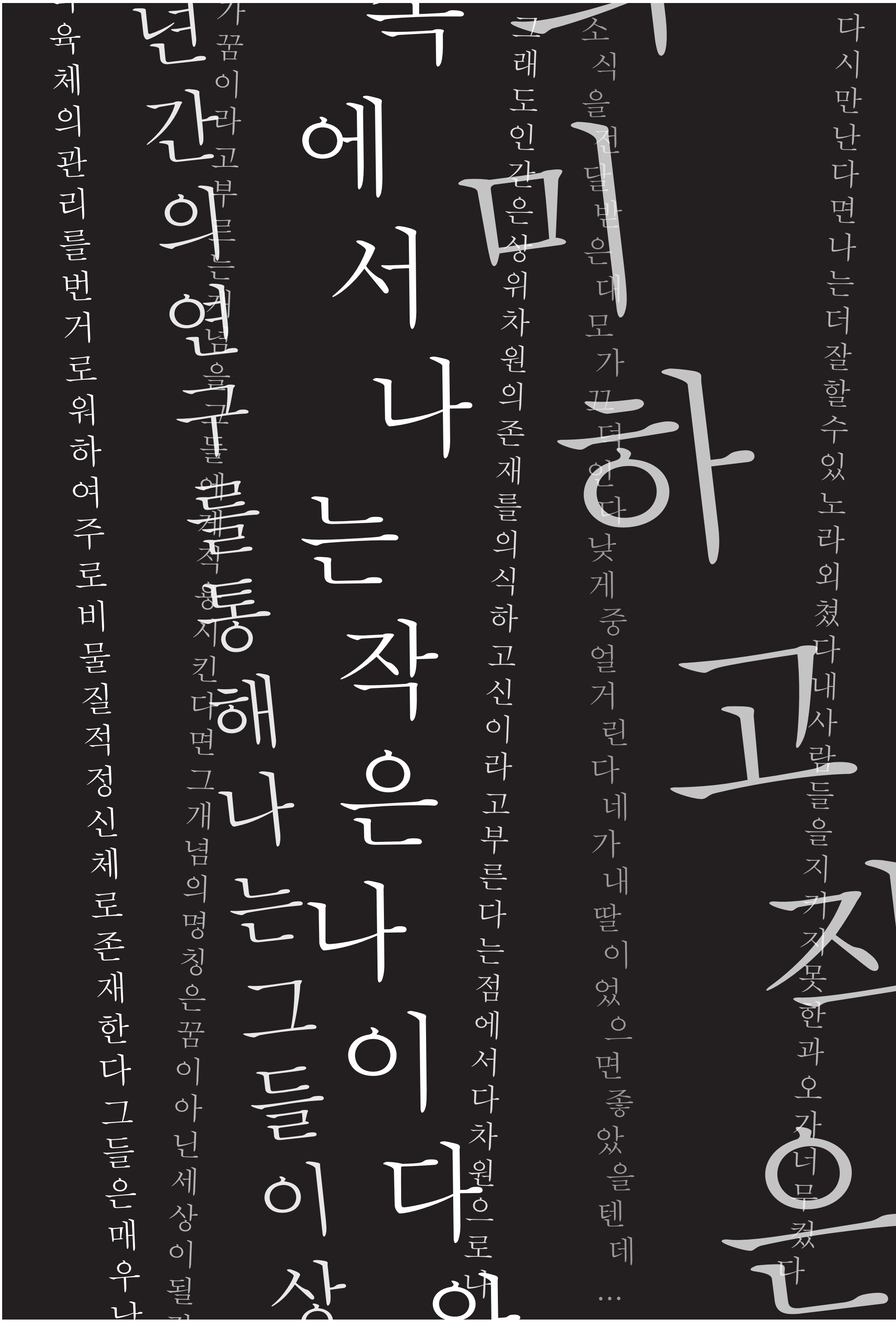
"문... 열어도 괜찮은 거 맞지?"

[물론이다. 인간들이 강아지를 입양할 때 인간의 절차를 치르듯, 우리도 우리만의 절차를 진행해야 가능하다.]

"..."

달칵,




다시 만난다면 나는 더 잘할 수 있노라 외쳤다 내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 과오가 너무 컸다
소식을 전달받은 대모가 끄덕인다 낮게 중얼거린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
그래도 인간은 상위 차원의 존재를 의식하고 신이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다차원으로
에서 나는 작은 나이다
년간의 연구를 통해 나는 그들이 상
그 개념의 명칭은 꿈이 아닌 세상이 될
육체의 관리를 번거로워하여 주로 비물질적 정신체로 존재한다 그들은 매우

념은 무용하

요동치는 대지에 머리를 박고 물었다 나는 왜 이리 살았나 고 책상 위의 어린 나를 후회하

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들이기 때

세상이 또 무너진다 나는 다시 신께 빌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킬 자신이 있노라고

그만 따라오라라고 했잖아

"으아아아아아"

이게 뭐야아아아아 머리가 쭈욱 빨려 들어가는 느끼이이이이이잉 머리가 흔들리는 느낌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아니지 뇌가, 뇌가 줄기 줄기로 펼쳐져서 빨려든다. 어디? 어디로? 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뭉그러지며 사그라지던 그 활자 하나하나가 된 것처럼 흐트러진다.

머리가 흔들리는 느낌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아니지 뇌가, 뇌가 줄기줄기로 펼쳐져서 빨려든다. 어디? 어디로? 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뭉그러지며 사그라지던 그 활자 하나하나가 된 것처럼 흐트러진다. 의식의 경계가 녹아내린다. 아니,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재조합된다. 아니, 분해된다. 다시, 채워진다... 조각조각 가루가 된 나의 재가 바람에 흩날리듯 움직인다. 집이었다가, 회사였다가, 전철역이었다가, 도로였다가... 으엑? 뭔 사막이 나오고, 으아아아아 화산이 나온다아아아아

■■.

기묘한 평온이 스며들듯 몸을 감싼다.
차가운 물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것 같은, 고요하고 충실한 감각. 그러나 이곳엔 물도, 빛도 없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채우고 있던 것들, 나였던, 나인 것들. 나는 공간 자체와 호흡하고 있다. 세상의 일부가 된다. 시간의 개념은 이질적이게 느껴진다. 순간이 곧 무한이고 무한이 곧 한순간으로 수렴한다. 나의 경계가 확장된다.

어떤 질문이 들려온 것도 같다. 하지만 대답할 필요는 없다. 그 질문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답이었다. 나는 흐르고, 얽히다, 번져 나간다. 서서히 희미해져간다... ... ...

허억!

심장이 뛰고 공기가 폐 속으로 쏟아진다. 눈을 떴다. 이상한 감각,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나의 방이었다. 나의 손에 쥐어진 구깃한 전단지.

4장

세 번 째
차원

네번째 차원

안녕 나는 공작님의 비서 레인이야. 비 오는 날에 공작님이 주워와서 레인인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지. 요즘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울증이 심해져서 상담사 레니언 씨의 추천으로 편지 형식의 일기를 써보려 해.

오늘 별다른 일은 없었는데... 공작가 후원 파티에서 젖은 잡초에 미끄러져서 엉덩이가 축축해진 채로 돌아다녔다는 것도 적어도 될까? 이미 적었지만... 너무 수치스러워서 공작님께 오늘부로 레인은 사회적으로 죽은 걸로 해달라고 했지만 기각당했어. 왜냐면 내일도 파티 행사가 있고 공작님은 가기 싫다고 나를 대리인으로 불러서 선물 좀 안겨주신다고 하거든. **싫어싫어싫어** 왜 나 같은 게 공작님 오른팔인 거야 너무 부끄럽다고 그 파티는 자작가 모튼 영애의 파티인데 오늘 내가 넘어진 거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가 아버지인 자작님께 눈치 먹은 거 내가 다 봤단 말이야! 하필 옷이 젖었을 뿐만 아니라 물을 마시다 넘어진 거라 사레까지 들렸어. 최악이야 정말. **공작님이 나 먹으라고 챙겨준 영양제**도 다시 내뱉어졌을 정도로 심하게 사레에 걸렸었지. 부끄러워 죽겠는데 사레가 안 멈춘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그러고 보니 공작님이, 공작? 그러니까 공작님이**... 아무튼 공작님의 말은 잘 들어야 해.** 우리는 사용인이기 때문이지. 공작님은 날 부려 먹기는 하지만 그 어떤 귀족보다 **다정하고 배포가 크시다**구. 나는 사용인으로서 이런 **공작님을 모시게 된 것에 감사해야해.** 이런 대단한 공작님 아래에서 일하면서 왜 나는 우울증 같은 게 온 걸까? **우울증? 내가 우울증? 내가 우울해?**

어?

"어?"

기억
했
구
나

이건 내 생각이 아니-

"■■!"

"아."

요즘 두통이 심하다니까. 기억도 깜빡깜빡한다. 그래서 그런지 우울증도 심해지고.

"사장님이 너 찾아."

"응? 왜?"

"내가 알겠니. 얼른 가봐 정신머리도 좀 챙기고."

"아하하, 응"

사장실로 들어갔다. 이상하게 사장실에 가까이 갈수록 발걸음이 늪에 빠지는 것마냥 **축축** 늘어졌다.

끼익-.

"사장님."

"응 그래"

"왜 찾으셨어요?"

사장의 책상 앞에서 물었다. 사장은 쌓인 결재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내게 답했다.

"요즘 두통은 괜찮고?"

"아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장이 결재 서류에 지장을 찍고 서류철을 툭, 하고 책상에 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요즘 병원에 안 갔다던데."

"그냥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서..."

"꾸준해야 효과가 있지."

"그쵸, 네..."

사장이 빤히 나를 보았다. 새까만 동공에 위축된 내 모습이 보였다. 다른 사장들은 직원이나 비서한테 관심도 없다는데 왜 우리 사장만 이렇게 부담스럽게 구는 거야?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감사하며 그의 걱정을 받아들여야지.** 음침한 구석이 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나를 거둬주신 분이니까 마음 쓰시는 건 당연하지.**

사장을 보았다. 사장 눈에 위축된 내 모습이 보였다. 위축된 내 모습... ... **저것 앞에서 내가 위축될 리가 없는데?**

내 눈빛을 보고 사장**그 것**이 한숨을 쉬었다.

"좀 편하게 가자."

뿌드득

드드드드득

철퍽

우드드드드득

아.

기억

안 지워졌다.

툭,

나는 드디어 모든 기억을 되찾았다! 괴물 같은 것이 아무리 나를 세뇌시키고 교육하려 해도 나의 트레잇 **"일기장"**은 나의 모든 기억을 기록한다. 나의 분노와 함께 내가 8살이었던 그 겨울 12월 2일의 오후 3시 04분 일기장이 펼쳐진다. 추웠는데 눈이 아닌 보슬비가 내렸다. 골목길에서 추위에 떨며 쭈그려 앉아 있었다. 어린 그것이 온다. 마주쳤다. 어린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꽤 잘 놀았나? 잘 놀았던 것 같다. 보육원에 그것의 가족이 왔다. 그것이 나를 입양하고 싶어 했으나, 나는 친부모가 곧 데리러 오기로 한 아이었다. 1주일 뒤에 나는 보육원을 나오는 날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나를 데려가지 못했다. 나는 다시 그 아이를 만나서 좋았다. 잔뜩 떠들었다. 안타깝지만 나는 부모가 있고 데리러 온다고. 일주일 뒤면 나는 떠난다고.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친부모의 집 위치를 몰랐기에 모른다고 답했다. 보육원을 떠나는 것은 좋았지만 새 친구와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조금 아쉬웠다. 나는 보고 싶을 거라고 말했다. 그것은 답이 없었다.

이틀 뒤 친부모가 죽어서 나는 보육원에서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것은 부모가 죽어 밖으로 나오지 않는 나를 보러 종종 보육원에 방문했다. 하지만 가족이 되자는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않았다. 마치 자기의 호의를 거절한 벌을 주는 것처럼. 선택을 잘했어야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일기장이 넘어간다.

촤르르ㅡ

첫 장은 이미 뭉개지고 눌러붙어 있었다. 무엇에 눌러붙어 있는 걸까... 지우개로 몇 번이고 지우고 다시 덧쓰고 지운 것처럼 헤진 종이에 옅은 잉크 자국이 비친다.

촤르르ㅡ, 트득.

투둑.

사람들은 각자 트레잇을 가지고 있다. 트레잇은 천 년 전 갑자기 인간에게 부여된 것으로 이것은 축복이라고 불리었다. 누군가는 건강과 힘에 관한 트레잇을 얻어 100살 동안 잔병치레 하나 없이 살았고, 누군가는 예술에 관한 트레잇을 얻어 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길이 남는 작품을 남겼다. 트레잇은 당연한 것이었다.

나의 트레잇은 일기장, 기억이었다. 나는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 한 번 스치듯 본 것도 평생 기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게 축복이 아니었다. 그 미개하던 시절 사람들은 잘 죽어 나갔고 나는 그 끔찍한 기억들을 조금도 지우지 못한 채로 가지고 살아야 했다. 나는 뛰어난 학자이자 성자이자 왕자의 스승으로 불렸지만 그럼에도 고통의 기억은 잊을 수 없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트레잇을 나는 싫어했다. 유용한 점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세상 모든 일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적인 것은 없는 법이다.

처음 세상이 돌아갔을 때, 나는 곧바로 알아차리지는 못했다. 난생처음 느끼는 이질감에 계속 그 근원을 찾으려고만 했다. 나는 뛰어난 학자였기에 곧 그것으로부터 세상이 종종 회귀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성자로서 그것을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배교자로 보아야 할지, 학자로서 그것을 위대한 인류의 진화로 보아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내 고민이 무색하게 그 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초반에만 해도 나는 학자로서의 나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던 것 같다. 그것에게 친밀하게 다가갔다. 자주 대화를 통해 고견을 나누었다. 나는 그것을 친우로 여겼다. 그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도 나는 그 동안의 우정을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 것이 인간을 도구로써 사용할 때는 더 이상 도무지 역겨움을 참아줄 수가

없었다. 메스꺼움을 참으며 그것의 방을 뛰쳐나왔을 때, 세상은 다시 돌아갔다.

내가 왕자의 스승이 아니게 되었어도 그것은 내게 접촉했다. 그 것이 거대하게 왕국을 집어삼키며 왕의 책사 자리까지 올랐을 때, 나는 도무지 버틸 수가 없어 퇴직했다. 내가 공포를 넘어 분노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이것이 나를 따라 지도 퇴직하고 날 처 따라다니기 시작할 때부터였다.

한 생에서 끝나는 악연이 아니었다. 나는 여자였다가, 남자였다가, 동물이었다가, 식물이었다. 매번 모든 생에서 그 것은 나를 찾아왔다. 그것은 세뇌를 잘 했는데 내가 다른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를 자꾸 세뇌해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진심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하려면 나는 그 것과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미칠 것 같은 상황이었다. 개구리로 태어났는데 개굴, 하고 우는 옆 개구리를 개구리가 때려죽였다.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다. 사실 개구리라 말할 수가 없었다. 개굴-,하고 나오던 목소리가 옆 개구리 때려죽는 소리에 딸꾹질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미친놈.

오래 붙들어 매고 있다 보니 그것은 내가 아주 어릴 때, 막 태어났을 때는 지능이 낮아 트레잇을 펼쳐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은 어린 나를 입양해서 데려왔다. 트레잇을 읽고 난 이후엔 나는 그것의 아들이었다. 으악! 가출했는데 엄마가 따라온다. 마마보이보다 무서운 것은 보이마마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 다른 특징은, 어릴 때부터 그것과 살다 보면 내게도 가끔 그것의 세뇌가 먹힌다. 나는 노벨과학상을 타고 나서야 나와 프로젝트를 함께한 유일한 파트너이자 형제가 그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랜만에 분노

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서 나는 그것을 마구 때렸지만 이것은 맞아주지도 않았다. 인간이 아니라 양심도 없다. 이렇게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으면 처맞아주기라도 해야 도리 아닌가?

그것은 내가 그것에게 친밀하게 대하도록 세뇌했다. 하지만 너무 뛰어난 나의 두뇌는 가끔 오류가 발생했고 세뇌가 종종 풀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온전한 나의 정신을 가졌고 그것은 더 강한 세뇌를 위해 연구하는 것 같았으나 내가 보기엔 미련한 짓이었다. 애초에 세뇌된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라면 아무 인간이나 데려와서 굳이 이렇게 귀찮은 일 할 필요 없이 안 질리게 매 인생마다 새로운 친구를 찾으면 되는 것이다. 저 멍청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천재였지만 저것의 선생도 아니고 저것이 그냥 싫었으므로 안 알려줬다. 알려줄 생각도 없다. 그닥 내 입으로 내뱉고 싶지도 않다...

"...뭐야."

눈을 뜨자 병실에 누워있는 내 옆에서 그것이 울고 있었다. 울어? 이게 미쳤네. 인간 연기 실력이 나날이 늘어가네.

"반말 왜 해. 난 네 사장님이야."

어린애의 투정 같았다. 나는 시선을 그것으로부터 돌린 채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표현했다.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했다. 세뇌에 대하여.

"말 좀 해봐."

"..."

뛰어난 머리로 오랫동안 고민했다. 이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으며 나는 정신병의학의 의학용어까지 섭렵해보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생각을 마친 내가 입을 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이 압도적인 두뇌 지능을 괴물 따위만을 생각하다가 두통에 요절하는 것은 인류의 손실이 너무 컸다. 지금까지의 손해를 따지자면 인류가 불을 발견하지 못한 수준이다.

"세뇌하지마."

"알았어,"

그것이 즉답한다. 내가 못미덥다는 표정을 짓자 꽤나 그럴듯하게 억울한 얼굴을 꾸며내며 말한다. 가증스럽긴.

"진짜 안 할게. 어차피 너도 계속 풀잖아."

어차피 벗어날 수 없다면 효율적으로 살아야한다. 나는 그냥 얘를 개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분리불안있는 강아지를 한 5번째 생에서 키워봐서 아는데 의외로 하루종일 놀아주며 달래야하는게 아니고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난리 안 친다. 제일 좋은 것은 분리불안을 치료하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쪽 개는 이족보행을 하고 초능력을 써대서 물리적으로 떨어져있기가 완전히 불가능이다. 그래... 이 또한 천재로 태어난 나의 리스크인 것을...

"..."

그것이 얌전한 채하며 날 보고 웃는다. 그래 그래도 몇 백년을 함께 했는가. 몇 천년일 수도 있다. 아... 생각할 수록 토 나올 것 같으니까 세월은 굳이 더듬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니까. 나이가 세자릿수가 넘어갔는데도 이 것의 옆에만 있으면 울화통 때문에 어른답게 잰 채할 수가 없다. **이 또한 정이 쌓인거겠지**

...

...

정?

아...

들켰다...

아, 이게 진짜,

나는 결국 비속어를 참지 못하고 그것에게 4시간동안 욕을 쏟아냈다.

epi ue

에필로그

"으음..."

새가 지저귀는 소리와 포근하고 따뜻한 이불... 폭신폭신한 침대... 나는 한껏 잠에 취해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어, 어제가 월요일이었는데 오늘이 토요일일 수는 없잖아? 어째서 알람 없이 눈을 뜬 거지? 몸... 몸이 너무 개운해. 다급하게 휴대폰을 켰다. 8시 30분. 나는 7시 기상하여 7시 40분에 나가 8시 전철을 타야했다. 9시 출근이었으니까!

"미, 미미미미쳤다!"

나는 허겁지겁 씻고 옷을 입었다. 양말도 짝짝이로 신은 채로 황급하게 나가려는 나의 눈에 익숙하지만 낯선 것이 보인다. 전단지. 동시에 나는 긴장이 풀렸다.

아 맞지 이게 있었지. 이거 땜에 오늘 꿈에서 아파트만한 강아지와 놀아주느라 죽을 뻔했다. 나는 전단지를 손에 쥐었다. 회사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눈을 감았다, 아아, 아아아-...

덜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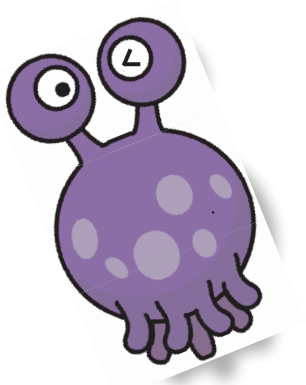
"아... 안녕하세요 팀장님."

"너 왜 비품실에서 가방 들고 그러고있냐? 출근은 언제 한 거야?"

"아하하, 바, 방금 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팀장님."

"그래. 쓰레기통에 끼인 엉덩이부터 빼라. 넘어졌냐?"

"넵...!"



작가노트

챕터 1

여자 귀신

마을 사람들의 마녀사냥으로 불타 죽었다. 그 분노가 저승으로 가지못하고 악귀로 남아 결국 신자들에 의해 탑에 갇히게 된다. 시간은 흐르고 방치되어 잊혀지니 분노의 방향은 어디로도 표출되지못하고 자아는 흐려져간다. 이름을 기억 하지 못하여 주인공이 나중에 좋은 뜻으로 지어준다.

주인공

시원시원한 성격의 청년. 여자를 무척 좋아하여 인생에서 연애를 쉬어본 적이 없는데 한 달 솔로였던 그 잠깐동안 귀신과 엮이게 되어 인생이 꼬인다. 귀신이 여자 귀신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끌리는 수준으로 여성이기만 하면 좋아한다. 그럴지만 무서운 거에는 약해서 귀신이 화내면 눈물을 훔칠정도로 순수 공포를 느낀다. 귀신이 염전할 때는 레이디처럼 대한다.

챕터 2

황제(48세)

키가 190cm를 넘고 살집이 많아 거대한 기골의 남자. 금발에 그다지 하얗지 않지만 건치를 가지고 있다. 젊을 적 잘생겼었다. 바람둥이, 카사노바, 왕자라는 권력을 가지고 책임없는 쾌락으로 많은 여자들의 인생을 망친 인간말종 성범죄자. 그러나 제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왕좌에 올랐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왕의 문란함이 과연 형제들의 방심을 유도했던 것인지, 그저 욕망에 충실한 폭군이었던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민생을 잘 다스리지는 못한다. 정확히는 신경쓰지않는다. 강한 왕권만이 중요하다.

1공주(30세)

황제의 왕자시절을 곧이곧대로 닮아 미인들 사이에서 사치스럽게 놀고 먹기를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싫어하여 정치를 혐오한다. 2공주가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부터 여동생을 안고 네가 후계하라고 세뇌해댔다. 그 때 1공주의 나이 고작 4살이었다.

2공주(26살)

권위적이다. 왕족 중 제일 왕족의 이미지에 가깝게 행동한다. 태어날 때부터 후계자로 떠받들여져 완벽한 공주로서의 모습이지만 모두가 후계자로만 대하니 애정결핍이 있다. 제 존재의의를 왕위와 후계자에 투영하다보니 제 자리를 침범하는 것들을 참아내지못한다.

3공주

2공주 세력에 의해 21살의 나이로 사망.

4공주(25세)

주로 5공주 7공주와 몰려다니며 주요 업무는 2공주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다.

사교계에서도 멋대로라는 이미지가 강하나, 사실은 1공주와 2공주가 무서워 자기방어적인 공격본능을 보이는 것이다. 서로 똘똘 뭉쳐있어 모친들끼리도 사이가 좋다.

5공주(25세)

궁 밖에서 태어난 첫번째 공주. 모친은 귀족이다.

6공주

1공주 세력에 의해 19살의 나이로 사망.

7공주(23세)

궁 밖에서 태어난 두번째 공주. 모친은 외국 귀족이다.

8공주

2공주 세력에 의해 20살의 나이로 사망.

9공주(23세)

궁을 나갔다. 무슨 일을 하고 사는 지는 모른다.

10공주(22세)

11공주와 친하여 둘이 같이 다닌다. 그닥 자매들의 암투와 궁 내 생존에 관심이 없으며 둘이 여행의 취미가 잘 맞아 주로 해외에 있어 궁 내에 잘 없다.

11공주(20세)

10공주와 친하다.

12공주(24세) [주인공]

늦게 입궁하여 12공주가 되었다. 분노의 역치가 낮아 쉽게 분노하다가도 어떨 때는 또 과하게 관대한 것이, 변덕스럽다. 왕의 왕자일 시절과 상당히 닮았다. 외관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주로 건방진 것을 싫어하고 제 몸에 손 대는 것은 더더욱 끔찍하게 혐오한다. 왕의 잔인한 성정을 많이 닮아 폭력적인 면이 심하나 모친이 온갖 노력을 들여서 기적처럼 최대한의 사회화에 성공했다. 건방진 것은 싫어하지만 도발적인 것은 흥미로워한다. 이따위 성격으로 가난한 평민으로 살아가다보니 자신도 주변 사람도 스트레스에 저혈압이 될 날이 없다.

주인공의 모친

현 왕의 왕자 시절 스승이자 왕궁의 책사 중 한 명이었다. 왕자가 왕이 되어서도 첨언을 아끼지않았으며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는 왕에 퇴직하고 궁을 나오다 왕의 아이를 임신한다. 꼴도 보기싫은 왕궁에 들여보내지않고 잘 키우리라 생각했는데 태생의 싹부터 누렇다. 애 사람 만드느라 남은 인생의 기력을 모두 소모하여 좀 쇠약해졌다. 그래도 애가 성인 되고 이후부터는 사람 꼴 갖아져 마음은 편해졌다. 딸을 볼 때마다 왕자시절의 왕과 너무 닮아 골아프다.

2공주 대모

혼인하지 않았으나 종교적 배우자는 존재한다. 주인공을 마주할수록 그 뛰어남에 감탄하며 현 왕과 2공주보다도 왕에 어울리는 재목이라 아쉬워한다.

챕터 3

기억자

주인공이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것. 숫자로 정의할 개념이 아니기에 5차원 이상의 고등차원이라고 뭉뚱그려서 자신을 소개한다. 저급차원의 지성체 중 제일 문명이 발전한 인간을 연구하는 연구원이자 학자. 차원 간 차이 때문에 자신의 차원에 크게 의존하는 단어같은 경우는 인간이 사는 차원에 무사히 전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인간 언어학에 다른 차원의 존재치고 상당히 조예가 깊다. 저급차원은 고급차원의 것과 마주하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올라오다보니, 인간 표본과 계약하기에도 큰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동안 인간들이 귀여워하는 인형들을 매개체로 시도해보았지만 그 인형들이 전부 귀신 들린 인형으로 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것을 보고 슬퍼했다. 인간에게 제일 만만한 매개체를 찾다가, 전단지로 홍보를 겸하여 매개체를 구성하였다.

챕터 4

주인공

인간 아닌 것과 엮여 인생을 넘어 앞으로의 후생들까지도 제대로 꼬였다.

그래도 그것의 존재로 앞으로의 생에 있어서 굶어 죽거나 돈에 쪼들릴 일은 없다. 모든 생에서 만성두통에 시달린다.

그것

사람이 아니다. 자신도 자신의 존재를 정의하지 못한다. 트레잇으로인해 자신의 존재를 기억할 수 밖에 없는 주인공을 특별하게 생각하며 크게 집착한다. 정신적 존재가 인간을 숙주로 말미암아, 세뇌로써 인간을 부리는 것이 익숙하다.

작가의 말

안녕하세요. 영원입니다

.

이 책은 평범한 소시민 직장인인 주인공이 외계 물체를 접하게 되며 벌어지는 사건들을 부분적으로 담은 책입니다. “오지랖”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의 성향은 그 특성으로인해 주인공을 외계인과의 접촉이라는 괴상망측한 일로 이끌기도 하였지만, 그 특성으로인해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갖기도 합니다. 삭막한 현대사회에서 주인공의 성질이 갖는 사랑스러움을 여러분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이 경험한 것은 다양한 차원의 자신의 경험입니다. 그것을 꿈으로서 확인하고 외계인은 그 꿈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학습합니다. 정이 많고 순진한 현대의 주인공도, 다른 차원의 난세에서는 영웅이 되기도,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 현대에서는 엉뚱하고 무른 성격이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분노조절이 힘들다거나, 우울증을 앓는 등 크게 다른 성향을 갖기도 합니다. 그것을 나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다차원을 동차원으로 보는 외계인은 그 모두를 주인공으로 봅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나의 이해도 단편적인 것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더 복잡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 외계인을 아는 것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뚱맞고 엉뚱하고 조금 기괴하기도 한 관계들과 사건들을 재미있게 경험하셨길 바랍니다.

이만 마칩니다. 모두 즐겁고 색다른 하루가 되시길.

본 인쇄물은'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로 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illegible]에 대하여

10,000₩